

# 오키나와의 요괴 기지무나의 다중적 신격 양상

김 용 의\*

(e-mail : yukim@jnu.ac.kr)

---

## 目 次

---

1. 머리말
  2. 요괴 기지무나의 가택신적 성격
  3. 요괴 기지무나의 다중적 신격
  4. 맺음말
- 

## 1. 머리말

일본의 하라 게이이치(原敬一) 감독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갓과 쿠와 여름방학(河童のクウと夏休み)>(2007)은 쿠(クウ)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갓과(河童)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 작품은 갓과 이외에도 자시키와라시(座敷わらし), 기지무나(キジムナ) 등의 요괴가 등장하여 작품에 재미를 더하고 활력을 불어넣는다. 갓과, 자시키와라시, 기지무나는 모두 일본의 민속신앙 및 민간설화에 자주 등장하는 요괴이다. 이들은 그 기원이나 인간과의 관계 맺기에 드러나는 속성에서 일정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일찍이 민속학자 오리쿠치 시노부(折口信夫)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이 주목한 바 있다.<sup>1)</sup> 따라서 이들이 <갓과 쿠와 여름방학>에 함께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

---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문화학 전공.

1) 예를 들면 折口信夫는 갓과, 자시키와라시, 기지무나를 동일 계열의 요괴로 간주하고 그 발생론적 전개과정을 논하였다. 折口信夫(1967), 『座敷小僧の話』『折口信夫全集』15, 中央公論社, pp.256-264. 小野重朗도 이 같은 관점에서 이들 요괴의 발생론적 전개과정을 단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小野重朗(1988), 『河童の系譜』『河童』, 岩崎美術社, pp.92-117.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 논저도 많은 참고가 된다. 石川純一郎(1985), 『河童の世界』, 時事通

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작품의 후반에 잣과 쿠가 오키나와로 기지무나를 찾아가서 조우하며 끝을 맺는 장면이 주목을 끈다.

기지무나는 일반적으로 오키나와에서 나무의 정령(精靈)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요괴이다. 가주마루(カジマル)라고 부르는 나무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지무나는 오키나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각각 다르다.<sup>2)</sup> 흔히 전해지는 신체적 특징은 붉은 얼굴에 붉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으며, 체구는 아이 정도로 작으며 손발이 유난히 길다는 점이다. 기지무나의 주된 속성으로는 생선의 왼쪽 눈을 즐겨먹고, 문어나 방귀를 무서워하며, 밤중에 문틈으로 침입하여 자고 있는 사람을 압박하여 괴롭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햇불을 들고 바다나 논을 달리는 기지무나불(キジムナー火)을 보았다는 목격담이 널리 전해진다.<sup>3)</sup>

본고는 오키나와 설화에 전하는 기지무나의 다중적인 신격에 관해서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설화 속의 기지무나는 요괴이면서도 다양한 신격을 지니고 전승되었다.<sup>4)</sup> 그 다중적인 신격을 유형화하면 가택신적 성격을 지닌 신격과 비가택신적 성격의 신격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다. 가택신으로서의 기지무나는 집안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신격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비가택신적 성격의 신격은 주로 어업신, 산신,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으로 인식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기지무나의 다중적인 신격의 양상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信社, pp.259-278. 福田晃(1992), 「木の精由來譚の位相」『南島説話の研究』, 法政大學出版局, pp.348-375.

- 2) 지역에 따라서 부나가야(ブナガヤ), 세마(セーマ), 보지마야(ボージマヤ) 등으로 다르게 불렸다. 본고에서는 기지무나로 통일해서 표기하기로 한다. 기지무나의 명칭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 辻雄二(1989), 「キジムナーの伝承—その展開と比較—」『日本民俗學』179号, 日本民俗學會, p.105. 赤嶺政信(1994), 「キジムナーをめぐる若干の問題」『史料編集室紀要』, 沖縄県立図書館史料編集室, p.1.
- 3) 다음 논문들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川田牧人(1987), 「妖怪の交響樂—奄美・加計呂麻島における妖怪譚の構造分析試論—」『日本民俗學』169号, 日本民俗學會, pp.37-71. 辻雄二(1989), 「キジムナーの伝承—その展開と比較—」『日本民俗學』179号, 日本民俗學會. 赤嶺政信(1994), 「キジムナーをめぐる若干の問題」『史料編集室紀要』, 沖縄県立図書館史料編集室, p.2.
- 4) 요괴의 신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논하였다. 최초로 이 문제를 학술적으로 검토한 柳田國男은 요괴를 신이 영락한 존재로 파악하였다. 예로 들면 잣과는 '수신신앙의 영락한 모습(水の神信仰の零落の姿)'으로 파악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잣과는 원래 수신이라는 혹은 그에 버금가는 신격을 지닌 존재였으나, 잣과가 영락하여 요괴화 되는 과정에서 신격이 결락하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서 小松和彦은 원래 신과 요괴는 같은 존재로, 사람들이 이를 만드는 제사를 지내느냐 지내지 않느냐라는 기준에 의해 신과 요괴를 구별할 수 있다고 유동적으로 파악하였다. 柳田國男(1969), 「桃太郎の誕生」『定本柳田國男全集』第8卷, 筑摩書房, p.73. 小松和彦(1979), 「妖怪—山姥をめぐる—」『日本の民俗宗教』3, 弘文堂, p.32. 小松和彦(1983), 「魔と妖怪」『日本民俗文化大系』第四卷, 小學館, pp.341-358.

## 2. 요괴 기지무나의 가택신적 성격

일본에 전하는 대부분의 요괴가 그러하듯이, 오키나와의 기지무나는 인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중첩된 양의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즉 인간이 기지무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재물을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존재인가 하면,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무서운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 쪽에서 볼 때에, 기지무나는 너무 멀리 해서도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존재였던 셈이다.

이 점에 대해서 오키나와의 설화집에서 확인하기로 한다. 먼저 『남도설화(南島說話)』(1922)에 수록된 사례를 주목하기로 한다. 『남도설화』는 사키마 고에이(佐喜眞興英)가 20여 년 동안 채록한 설화 중에서 100편을 골라서 편찬한 설화집이다.<sup>5)</sup> 이 설화집은 당시로서는 드물게, 각 설화의 채집 시기 및 지역, 그리고 구술자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밝히고 있어서 구전설화로서의 자료적 가치가 높다. 여기에는 총 10편에 이르는 기지무나에 관한 설화가 <식물에 관한 이야기(植物に關する話)>로 분류되어 있다.<sup>6)</sup> 이들 설화에는 일찍이 오키나와 사람들이 기지무나라고 하는 요괴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지무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교섭을 하여 왔는지, 그리고 기지무나에 부여한 다양한 속성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다음의 [표]는 필자가 『남도설화』에 수록된 10편의 기지무나 설화를 설화 제목, 기지무나의 정체 혹은 명칭, 등장인물, 주요 구성 모티브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표]를 통해서 인간과 기지무나의 관계 맺기에 드러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오키나와 사람들은 기지무나를 나무의 정령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사람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기지무나와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셋째 기지무나와 친구가 되면 기지무나가 고기를 잡아주는 등의 덕을 볼

5) 佐喜眞興英의 연구사적 업적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稻福みき子(1995), 「佐喜眞興英の『沖繩民俗社會像』—その檢討と課題」, 『沖繩民俗研究』第15号, 沖繩民俗學會. 山里純一(1995), 「佐喜眞興英收集のまじない資料をめぐって」, 『日本東洋文化論集』(1), 琉球大學法文學部.

6) 佐喜眞興英은 『남도설화』에 수록된 총 100편의 설화를 <세상의 시작>(8편), <신들의 혼인 전설>(4편), <동물과의 교접 이야기>(4편), <인간이 동물로 변한 이야기>(4편), <동물에 관한 이야기>(20편), <식물에 관한 이야기>(12편), <요괴 이야기>(12편), <신의 위력에 관한 이야기>(5편), <결출한 인물 이야기>(8편), <오니(鬼), 아귀, 도적 이야기>(6편), <불가사의한 출세 이야기>(4편), <정사(情事)에 관한 이야기>(5편), <잡화>(8편)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기지무나에 관한 설화는 <식물에 관한 이야기>로 분류하였다. 이 점을 보면 佐喜眞興英가 기지무나의 존재를 ‘나무의 정령’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가 있었다. 넷째 사람들은 기지무나와 오래 사귀기를 원하지 않아서 멀리하고자 했다. 다섯째 이 경우에 대개 기지무나가 복수를 하였다.

[표] 『남도설화』에 수록된 10편의 기지무나 설화

번호	제목	기지무나	등장인물	주요 모티브 구성
제41화	기지문(キジムン)이 부(富)를 관장하는 이야기	저택 안에 있는 나무의 정령	노인	기지무나와 친구가 되다, 기지무나가 고기를 잡아준다, 부자가 되다, 기지무나에 싫증을 느끼다, 기지무나의 처소에 불을 지르다, 기지무나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살다, 집안이 망하다
제42화	기지문이 장수(長壽)를 관장하는 이야기	기지문(キジムン)	노인	기지무나와 친구가 되다, 기지무나가 고기를 잡아준다, 노인이 장수를 하다, 기지무나와 절교를 결심하다, 문어와 닭으로 기지무나를 물리치다, 기지무나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살다, 노인이 사흘 후에 죽다
제43화	기지문의 고기잡이	기지문(キジムン)	어떤 사람	기지무나와 친구가 되다, 문어를 많이 잡다, 기지무나에 싫증을 느끼다, 절교를 하다, 문어가 잡히지 않다
제44화	기지문과 야마토(大和) 구경 간 이야기	기지문(キジムン)	어떤 사람	기지무나와 친구가 되다, 기지무나가 소원을 묻다, 야마토 구경을 나서다, 방귀를 조심하다, 야마토 구경을 하고 오다
제45화	부나가(フナガ) 이야기	나무의 정령	무 쓰 마 타 집의 주인	기지무나가 집을 찾아오다, 기지무나를 후하게 대접하다, 보답으로 짐일을 거들다, 기지무나에 싫증을 느끼다, 절교를 결심하다, 문어로 기지무나를 물리치다, 기지무나가 찾아오지 않다
제46화	나무의 정령 이야기(1)	나무의 정령	길을 잃은 나무꾼	나무꾼이 길을 잃다, 모밀잣밤나무 밑에서 노숙하다, 나무 정령들의 말을 엿듣다
제47화	나무의 정령 이야기(2)	나무의 정령(기지문)	숫구이	산속에 머물다, 나무의 정령이 출현하다, 붉은 얼굴을 한 아이 모습, 불을 쬐다, 청죽을 태워 폭음을 내서 물리치다
제48화	기지문이 영	기지문	어떤	기지무나와 친구가 되다, 함께 고기

	혼을 취하는 이야기	(키짐ン)	사람	를 잡으면 사람이 차지하다, 기지무나가 어떤 집 사람의 혼을 가지고 나오다, 기지무나가 종이에 쓴 혼을 잊고 놔두다, 어떤 집의 딸이 위독하다, 친구가 된 사람이 병을 낫게 하다, 딸과 결혼하여 재산을 물려받다
제49화	기지문을 부르거나 물리치는 주문	기지문 (키짐ン)		기지무나를 부르거나 물리치는 방법, 친구가 되는 방법
제50화	다양한 기지문 이야기	기지문 (키짐ン)		다양한 기지무나의 속성

[표]를 통해서 확인한 기지무나의 다섯 가지 공통적인 특징 중에서 먼저 주목할 점은 기지무나가 나무의 정령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그것도 단순한 나무의 정령이 아니라, 집안 및 집 부근의 나무에 서식하며 집안의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택신적 성격을 띤 신격으로 인식되었다.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사례1]

기노완 마기리(宜野灣間切) 아라구스쿠 촌(新城村) 나카도마리(中泊)의 저택에 커다란 빈기(ビンギ)[나무이름]가 있었다. 우뚝하게 솟은 노목이었는데, 그곳에 기지무나(ギジムナ)[아마도 기지모노(木じもの)일 것이다. 나무의 정령을 말한다]가 살고 있어서 나카도마리의 노인과 친구가 되었다. 그리하여 매일 밤, 그를 바다로 데려 갔다. 고기를 잡아 왼쪽 눈깔만 자신이 먹고, 나머지는 노인에게 주었다. 덕분에 노인은 여유롭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가 있었다. 처음 한 동안은 그다지 싫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밤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노인은 어떡해서든지 기지문(ギジムン)과 절교를 하고자, 어느 날 밤 커다란 빈기 나무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기지문은 “앗타(熱田) 히가(比嘉)로 가자! 앗타 히가로 가자!”라고 외치며 사라졌다. 그런데 그 후에 유복하게 살았던 나카도마리 집안은 곧 망하고, 그와는 반대로 앗타 촌(熱田村)의 히가(比嘉) 집안은 부자가 되었다.<sup>7)</sup>

[사례1]은 가택신으로서의 기지무나의 신격이 분명하게 드러난 흥미로운 사

7) 佐喜眞興英(1922), 『南島説話』, 郷土研究社, p.40. 본고에서 인용한 설화 및 일본어 자료의 한국어 번역은 모두 필자의 줄역이다.

레이다. 집에 심어진 빈기(ビンギ)라는 노목에 기지무나라는 나무의 정령이 살았는데, 그 집 노인과 친구가 되었다. 노인은 기지무나가 고기를 많이 잡아준 덕분에 여유로운 생활을 보낼 수가 있었다. 그런데 노인은 기지무나가 귀찮아져서 기지무나가 서식하는 나무에 불을 지르고 말았다. 다시 말하자면 노인 쪽에서 먼저 기지무나에게 절연을 시도한 셈이다. 그러자 기지무나는 처소를 옮기게 되었으며, 그 후 노인은 망하고 기지무나가 옮겨간 집은 흥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사례1]의 모티브 구성을 보면, <주인공이 기지무나와 친구가 되다>, <기지무나 덕에 부자가 되다>, <기지무나에 싫증을 느끼다>, <주인공이 기지무나의 처소에 불을 지르다>, <기지무나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다>, <주인공의 집이 망하고 기지무나가 옮겨간 집이 흥하다>라는 서사구조로 설화가 전개된다. [사례1]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기지무나가 이사를 가게 되자, 이사 전에 살았던 집이 망하고 새로 이사한 집은 흥했다는 대목이다. 말하자면 [사례1]에 등장하는 기지무나는 일종의 가택신으로 인식되었던 셈이다. 이 점에 관해서 [사례1]과는 다른 서사구조로 전개되는 사례를 참고하기로 한다.

#### [사례2]

옛날에 나카자토(仲里) 마기리(間切), 마자 촌(眞謝村)에 있는 우수쿠차(うすくちゃ)라는 집의 청년이 집 뒤에 있는 노목 뿌리에 사는 나무 정령과 친구가 되었다. 기지무나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쉬지 않고 밤마다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중략)… 그래서 어떡하든지 기지무나하고 인연을 끊으려고, 기지무나가 사는 곳을 불태우면 다른 곳으로 옮겨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중략)… 아내와는 둘이 나가 있는 사이에 갈대에 불을 붙여서 기지무나의 집을 태워버리자고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기지무나가 열심히 조개를 캐고 고기를 잡고 있다가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난다. 이것은 우리 집이 타는 냄새야. 돌아가자! 바로 돌아가!”라고 말하였다. 청년은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고기잡이에 몰두한 척을 하며 시간을 벌었다. 두 사람이 돌아와서 보니 생각했던 대로 기지무나가 사는 곳이 흔적도 없이 불타있었다. 기지무나는 “우리 집이 불타서 여기서는 살 수 없게 되었다. 나하(那覇)에 가면 아자토 하치만(安里八幡) 정원에 고목이 있는데, 그 나무에는 아직 아무도 살지 않으니 까 그곳으로 가서 살겠다. 나하에 오게 되면 꼭 찾아오게나.”라고 명한 표정으로 어렵게 말했다. …(중략)… 그러자 지금까지 재미있게 듣고 있던 집 주인이 갑자기 무서운 모습으로 변하며 일어서서, 난로에 놓여 있던 불타는 장작을 집어 들어 청년의 눈을 찔렀다. 일부러 나하까지 가서 생각지도 않게 맹인이 된 청년의 자손들은 눈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졌다.<sup>8)</sup>

[사례2]는 『일본민담통관(日本昔話通観)』(제26권)에 <인간과 기지무나-복수형(人とギジムナー-仕返し型)>으로 분류된 유형의 기지무나 설화이다.<sup>9)</sup> [사례2]의 모티브 구성을 보면, <주인공이 기지무나와 친구가 되다>, <기지무나에 싫증을 느끼다>, <주인공의 아내가 기지무나의 처소에 불을 지르다>, <기지무나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살다>, <주인공이 과거의 사실을 밝히다>, <기지무나가 복수를 하다>, <주인공이 해를 입다>라는 서사구조로 설화가 전개된다. [사례1]과 비교할 때에 주인공의 처가 등장하여 기지무나의 처소에 불을 지르는 모티브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기지무나가 후에 자신의 처소에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서 복수를 한다.

앞의 [사례1]과 [사례2]는 가장 전형적인 기지무나 설화에 속할 것이다. 이 두 사례는 기지무나가 등장하는 오키나와 설화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설화이다. [사례1]이나 [사례2]는 공통적으로 인간과 기지무나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자, 특히 인간이 먼저 기지무나에 싫증을 느끼고 절연을 시도한다. 그러자 기지무나는 다른 곳으로 처소를 옮긴다. 이 경우에 먼저 절연을 시도한 인간 쪽이 후에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례2]에 직접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사례1]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에, 기지무나를 추방한 청년 부부는 그 후 물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사례2]의 후반부에 전하는 것처럼, 기지무나의 복수라는 형식으로 기지무나의 처소를 불태우고 그를 추방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다. 다시 말하자면 기지무나라는 가택신을 추방한 대가를 치른 셈이다.

기지무나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전하는 다종다양한 요괴 중에는 집안의 번영을 보장해주는 가택신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예를 들면 본고의 서론에서 <갓과 쿠와 여름방학>에 기지무나와 함께 등장한다고 언급한, 요괴 자시키와라시(座敷わらし)는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자시키와라시에 관해서는 다음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 [사례3]

유서 있는 집안에는 자시키와라시(ザシキワラシ)라는 신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신은 대부분 열두세 살 정도의 소년 모습을 하고 있다. 때때로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쓰치부치(土淵村)의 이이테(飯豊)에 사는 이마부치 간주로(今淵勘十郎)라는 사람의 집에 최근에 고등여학원(高等女

8) 稲田浩二・小澤俊夫 責任編集(1983), 『日本昔話通観』第26卷, 同朋舎出版, pp.132-133.

9) 『日本昔話通観』에는 <인간과 기지무나-복수형(人とギジムナー-仕返し型)>이 26편, <인간과 기지무나-무엇이 무서운가 형(人とギジムナー-何がこわい型)>이 7편으로 총 33편의 기지무나 설화를 요약하여 수록하였다.

學院)에 다니던 딸이 방학을 맞이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복도에서 갑자기 자시키와라시와 마주쳐 놀란 일이 있었다. 틀림없이 사내아이의 모습이였다. …(중략)… 잠시 그 방에 앉아있었더니 콧소리(코를 푸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자시키와라시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집안에도 자시키와라시가 살았던 것이다. 오래전의 일이다. 이 신이 살고 있는 집안은 부자가 된다고 전해진다.<sup>10)</sup>

[사례3]은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가 편찬한 『도노 모노가타리(遠野物語)』에 수록된 자시키와라시에 관한 설화이다. 자시키와라시는 일반적으로 ‘座敷童子’라는 한자로 표기한다.<sup>11)</sup> 주로 일본의 동북지방 중에서 이와테현(岩手縣)을 중심으로 전하는 집안의 정령(精靈)을 가리킨다.

[사례3]에 전하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소년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얼굴은 붉은색이라고 한다. 이 점은 서론에서 언급한 기지무나의 신체적 특징과도 비슷하다. 기지무나와 자시키와라시의 속성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무엇보다도 양쪽 모두 가택신이라는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례3]의 말미에 “이 신이 살고 있는 집안은 부자가 된다고 전해진다.”라고 분명하게 언급되었다. 다음 사례에는 이 점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 [사례4]

혹은 자시키와라시가 여자아이인 경우가 있다. 같은 야마구치(山口)에 사는 명문 집안인 야마구치 마고자에몬(山口孫左衛門)이라는 집안에는 두 명의 여자아이 신이 살고 있다고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다. 어느 해인가 같은 마을에 사는 어떤 남자가 읍내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리 부근에서 낯선 아름다운 처자 두 명을 만났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이쪽으로 다가왔다. 남자가 “어디에서 오는 길인가요?”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야마구치에 사는 마고자에몬 집에서 오는 길인데요”라고 대답했다. “어디로 가는 길인가요?”라고 다시 물었더니 “건너편 마을의 아무개 집에 가는 길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아무개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건너편 마을에 있으며 지금도 집안이 훌륭한 부농(富農)이다. 이제 ‘마고자에몬 집안도 끝장났구나.’라고 생각했다. 얼마 안

10) 김용의 역(2009), 『도노 모노가타리』, 전남대학교출판부, pp.45-46.

11) 주로 ‘자시키(座敷)’에 출몰하는 ‘와라시(童子)’ 모습을 한 요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기한다. 자시키만이 아니라 창고에도 나타난다고 해서 구라와라시(‘구라’란 창고라는 의미)라 부르기도 한다. 자시키와라시에 관해서는 다음 논고를 참조. 折口信夫(1967), 『座敷小僧の話』『折口信夫全集』15, 中央公論社, pp.256-264. 佐々木喜善(1986), 『奥州のザシキワラシ』(『佐々木喜善全集』1), 遠野市立博物館.

있어서 그 집안의 주인과 스무 명이나 되는 하인들이 독버섯을 먹고 하루아침에 모조리 죽어버렸다. 일곱 살 된 여자아이만이 혼자 남았으나 그 아이도 늙도록 자식이 없다가 최근에 병으로 죽었다.<sup>12)</sup>

[사례4]는 자시키와라시가 다른 집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목격한 목격담 형식이다. 여기서 자시키와라시는 두 명의 여자아이로 등장한다. [사례3]에 등장하는 자시키와라시와는 성별이 반대지만, 두 사례 모두 자시키와라시가 작은 아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사례4]에서 중요한 것은 자시키와라시가 살다가 떠나버린 마고자에몬 집안이 망하고, 새롭게 자리를 잡은 아무개 집이 번창하였다는 대목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례1]에 등장하는 오키나와의 기지무나나 [사례3] 및 [사례4]의 자시키와라시는 모두 집안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가택신이라는 점에서 같은 계통의 요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통론적으로 볼 때에 기지무나나 자시키와라시는 같은 선상에 놓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서론 부분에서 하라 게이이치 감독의 <갓과 쿠와 여름방학>에 갓과, 자시키와라시, 기지무나가 함께 등장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도 이 점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들 요괴의 가택신적 속성으로 인해 갓과를 주인공으로 하는 <갓과 쿠와 여름방학>에 자시키와라시나 기지무나가 함께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3. 요괴 기지무나의 다중적 신격

오키나와에 전하는 기지무나에 관한 설화를 검토하면, 기지무나는 가택신 이외에도 여러 다중적인 신격으로 전승되었다. 다시 강조하자면 오키나와의 기지무나는 가택신이라는 단일한 신격으로만 인식되지 않았다. 가택신 이외에도 설화에 등장하는 기지무나의 신격을 분류하면, 바다에서 어업을 도와주는 어업신,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보호해주는 산신, 심지어는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으로까지 인식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바다에서 고기를 잡도록 도와주는 어업신으로서의 신격이다. 기지무나 관련 설화를 읽다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기지무나와 친구가 된 사람이 고기를 잘 잡게 되었다는 모티브가 삽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 사례를 참고하기로 한다.

12) 김용의 역(2009), 『도노 모노가타리』, 전남대학교출판부, pp.47-48.

## [사례5]

해변에 사는 노인이 기지문(ギジムン)과 친구가 되었다. 기지문은 매일 밤 그를 데리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왼쪽 눈깔만 자신이 먹고 나머지는 모두 그 노인에게 주었다. 노인은 덕분에 장수를 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노인은 기지문과의 교제가 어떻게 끝날지 두려워져서 절교하려고 결심하였다. 어느 날 밤, 이야기 도중에 너는 무엇이 가장 무섭냐고 물어 보았더니, 기지문은 문어와 닭이 가장 무섭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노인은 다음날 밤, 문어를 문 입구에 걸고 자신은 도롱이를 입고서 지붕 위에 올라가, 기지문이 부를 때에 날갯짓을 하여 새벽을 알리는 닭 흉내를 냈다. 기지문은 처음에 닭인 줄 알고 노인 집에 들르지 않았지만, 잘 보니 해변에 사는 노인인 것을 알고 “이놈, 죽여 주마!”하며 성큼성큼 앞으로 나가가려 하였다. 그러나 기지무나는 문 입구에 걸려 있는 문어가 무서워서 떨다가 그대로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 그로부터 기지문은 해변에 사는 노인 집에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노인은 그 후 사흘이 지나자 죽고 말았다.<sup>13)</sup>

[사례5]는 오키나와에 전하는 전형적인 유형의 기지무나 설화 중의 하나이다. 모티브 구성이 앞의 <사례1>과 유사한 서사구조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사례5]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기지무나가 고기를 잡아서 노인에게 건네주었다는 대목이다. 이는 기지무나의 어업신적 성격과 관련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례5] 이외에도, 앞에서 [표]로 정리한 『남도설화』에서 이를 확인하자면, <제42화>, <제43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42화>에서 기지무나는 자신이 잡은 고기를 눈깔만 먹고 노인에게 건네주었다. <제43화>의 기지무나는 친구가 된 사람에게 문어를 많이 잡도록 도와주었다. 설화에서 고기를 많이 잡도록 도와주는 기지무나의 속성은 가장 일반적인 속성이기도 하다. 이 같은 기지무나의 속성은 본고에서 주로 사례를 인용한 『남도설화』 이외에, 다른 자료집에서도 흔히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sup>14)</sup> 이 점을 보면, 기지무나는 어업신적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기를 잡아서 인간에게 건네주는 것은 오키나와의 기지무나에만 한정된 속성은 아니다. 이는 일본 각지에 풍부하게 전해지는 요괴 갖과의 주된 속성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sup>15)</sup> 그 예로 다음 사례를 보기로 한다.

13) 佐喜眞興英(1922), 『南島説話』, 郷土研究社, pp.41-42.

14) 예를 들면 島袋源七가 1929년에 출간한 오키나와 북부 안바루(山原)지역의 민속에 관한 민속보고서에 <기지무나 이야기(ギジムナーの話)>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설화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후에 일본민속지대계에 수록되었는데, 본고에서는 여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島袋源七(1974), 『山原の土俗』『日本民俗誌大系』, 角川書店, p.346.

[사례6]

옛날 어느 곳에 농부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 농부는 마을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시집온 날부터 집 주변에서 엉엉, 엉엉, 엉엉하고 갓파(河童)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이 여자가 갓파 딸도 아닐 터인데, 하고 이상케 생각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신선한 천어(川魚)가 부뚜막에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저 갓파가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엉엉, 엉엉, 엉엉하고 우는 소리가 마치 엄마, 엄마, 엄마하고 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농부의 아내가 된 여자는 훨씬 전에 불구아를 낳아서 그 아이를 하천에 내다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천에 내버려진 그 아이는 갓파의 일족으로 길러져서, 어엿한 갓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갓파라도 낳아준 어머니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어머니를 찾아 왔던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인간 흉내를 내서 답례로 천어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의 일입니다. 농부의 아내가 깜빡 잊고서 부뚜막에 식칼을 올려놓았더니, 식칼을 무서워하는 갓파가 두 번 다시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갓파가 답례로 찾아오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전해졌다고 한다.<sup>16)</sup>

[사례6]은 『일본의 민화(日本の民話)』에 수록된 설화이다. 갓파와 인간의 혼인에 관한 이류혼인담이자 갓파가 고기를 잡아다주는 보은담이기도 하다. [사례6]에 보이는 것처럼, 갓파가 인간에게 고기를 잡아다주는 것은 갓파의 두드러진 속성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갓파 설화에서는 갓파가 인간에게 나쁜 장난을 치다가 발각되어 이를 사죄하는 의미에서 고기를 잡아다주곤 한다.<sup>17)</sup>

[사례6]에서는 인간과 갓파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어엿한 갓파로 성장한 후에,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잊지 못하여 고기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지무나가 인간에게 고기를 잘 잡도록 도와주는 속성, 그리고 갓파가 인간에게 고기를 가져다주는 유사한 속성을 비교하면, 양자가 발생론적으로 같은 계

15) 그밖에도 갓파의 주된 속성은 대략 다음과 같다. 주로 물가에서 살며 말을 물속으로 끌어들이거나 사람에게 스모(相撲)를 하자고 덤빈다. 사람에게 밥상이나 그릇을 빌려주며 물고기를 선물한다.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병에 걸리게 한다. 아이의 시리코다마(尻子玉)를 빼가거나 여자를 희롱한다. 오이를 좋아한다. 불교의 상징물이나 수신제(水神祭)의 주물을 무서워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石川純一郎(1985), 『河童の世界』, 時事通信社, pp.93-249.

16) 比江島重孝 編(1974), 『日本の民話』23, 未來社, pp.69-70. 이외에도 다음 논저에 이와 관련한 여러 사례가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石川純一郎(1985), 『河童の世界』, 時事通信社, pp.198-202.

17) 이 유형의 설화는 흔히 <갓파의 사죄문(河童の詫び証文)>이라는 제목으로 분류된다. 이에 관한 사례가 柳田國男의 『遠野物語』 제58화로 수록되었다. 번역 텍스트로는 다음을 참조. 김용의 역(2009), 『도노 모노가타리』, 전남대학교출판부, pp.100-101.

통의 요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오노 주로(小野重朗)의 연구이다. 그는 산신(山の神), 야만타로(山ん太郎) 및 야마와로(山ワロ), 갓과, 자시키와라시, 기지무나 등을 계통론적으로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에 의하면, 원래 산신에서 출발하여 산중의 요괴인 야만타로 및 야마와로, 평지 및 물가의 요괴인 갓과, 가택신 자시키와라시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즉 오노 주로는 이들을 모두 같은 계통에 속하는 요괴로 파악하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산신에서 야만타로 및 야마와로로 전개되는 계통과는 다르게, 산신에서 산이나 바닷가에 서식하는 기지무나가 별도로 발생하였다고 보았다.<sup>18)</sup> 말하자면 기지무나의 기원을 산신과 관련지어서 해석하였다. 그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지무나 관련 설화 중에는 간혹 산신으로서의 기지무나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설화가 전해진다. 다음 사례는 이 점과 관련이 깊다.

#### [사례7]

한 나무꾼이 산길을 헤매다 어쩔 줄을 몰라 찢찢 매고 있을 때, 나무의 정령이 사는 나무인 모밀잣밤나무 아래에서 하룻밤 머물기로 하였다. 모밀잣밤나무는 반드시 인간을 잘 보호해 준다. 나무꾼은 나무 아래에서 눈을 붙이고 있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대화를 들었다. 제1 나무의 정령 : “어이-”, 제2 나무의 정령 : “어-”, 제1 나무의 정령 : “밤놀이 하러 나가지 않겠는가?”, 제2 나무의 정령 : “나도 함께 가고 싶지만 오늘 밤은 안 되네. 인간이 머물고 있어서.” 산에서 헤매던 나무꾼은 모밀잣밤나무를 발견하면 살았다며 크게 안심해도 된다. 마을 사람들도 산에서 조난당한 자를 찾을 때에는 모밀잣밤나무 아래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대체로 구조되었다.<sup>19)</sup>

[사례7]은 『남도설화』에 수록된 제46화 <나무의 정령 이야기(木の精の話)>의 전문이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나무꾼이 나무의 정령의 가호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사례7]에는 ‘기지무나’라는 표현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여기 등장하는 나무의 정령은 기지무나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 같다. 『남도설화』 제46화를 전후로 수록된 제45화 및 제47화가 모두 기지무나 관련 설화이기 때문이다.<sup>20)</sup> 앞서 인용한 오노 주로의 산신과 기지무나의 발생론적 관계를 참고한다

18) 小野重朗(1988), 「河童の系譜」『河童』, 岩崎美術社, pp.92-117. 이 점에 관해서는 한국의 도깨비까지 시야에 넣고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依田千百子が 지적한 것처럼 한국의 도깨비도 발생론적으로 산신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依田千百子(1991), 「妖怪トケビと朝鮮の民俗宇宙」『朝鮮神話傳承の研究』, 琉璃書店.

19) 佐喜眞興英(1922), 『南島説話』, 郷土研究社, pp.44-45.

20) 특히 제47화는 제목이 제46화와 동일하게 <나무의 정령 이야기>로 되어 있다. 여기서 ‘나무의 정령’은 기지무나를 가리킨다.

면, [사례7]에는 기지무나의 산신으로서의 속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남도설화』에 [사례7] 바로 다음에 수록된 다음 설화도 참고가 된다.

[사례8]

솥을 굽고 있을 때[산염 제조에 사용하는 솥]는 사나흘이나 산속에 있게 되는데, 이때에는 나무의 정령이 곧잘 나온다. 기지문은 붉은 얼굴을 한 아이 같으며 충각이다. 때로는 인간처럼 불을 쬐기도 한다. 이를 물리치려면 푸른 대나무를 태워서 폭음을 내야 한다.<sup>21)</sup>

[사례8]은 산속에 출현하는 기지무나에 관한 설화이다. 본문에는 기지문(キジムン)으로 표기되었다. 기지무나의 “붉은 얼굴을 한 아이”라는 신체적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기지무나가 출현하는 활동공간이 산속이었다는 점에서 산신으로서의 기지무나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표]의 제45화에 등장하는 기지무나는 산에서 목재를 운반하는 일을 돕기도 하였는데, 이 점도 원래 기지무나가 발생론적으로 산신 계열에 속했다는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처럼 기지무나는 집안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가택신, 고기를 잡게 해주는 어업신, 산속에 거주하는 산신이라는 다중적인 신격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으로서의 신격에 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사례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사례9]

옛날, 어떤 사람이 기지문과 친구가 되었다. 둘은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기지문은 생선 종류와 문어 종류를 매우 능숙하게 잘 잡았는데, 그 잡은 것은 그의 친구가 차지하였다. 어느 날, 둘이서 산책을 하다가 기지문이 어떤 집 문앞에 멈춰 서더니, “잠깐 이 집에 들어가서 사람의 혼을 가지고 올 테니 기다리라.”라며 껌싸게 들어갔나 싶더니 바로 나왔다. 기지문은 흰 종이에 혼을 싸서 가지고 있었다. 잠시 걸으며 둘은 여러 가지 이야기에 빠져 들었다. 기지문은 혼을 싸는 종이를 돌담 위에 놓고 잡담을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을 떠날 때, 기지문은 종이를 놔둔 사실을 잊어버렸다. 친구는 그것을 몰래 주머니에 넣고 모른 척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이 되었다. 그는 어제 기지문이 들렀던 집의 딸이 목숨이 위태롭다는 말을 들었다. 그 집은 근처에서 으뜸가는 부호였다. 그는 재빨리 찾아가서 주인을 만나 말하였다. “듣자니 따님이 매우 위독하다고 하던데 제가 낮게 해드릴까요?” 주인은 “그렇게 해 주시

21) 佐喜眞興英(1922), 『南島説話』, 郷土研究社, p.45.

오.”라고 청하였다. 그가 “그런데 보수로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라고 묻자, 주인은 “무엇이든지 드리지요. 딸은 물론 집안의 재산 전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는 “그러면 지금 낮게 해드리지요.”라고 말하고 어제 흰 종이로 싸매어 두었던 혼을 딸의 가슴에 눌러 붙이고 뭔가 주문을 외었다. 그러자 딸은 곧 완쾌하여 그는 딸과 부호의 전 재산을 물려받았다.<sup>22)</sup>

[사례9]는 제48화 <기지무나 영혼을 취하는 이야기>의 전문이다. [사례9]는 이제까지 본고에서 검토한 사례들과 비교할 때에 상당히 이색적이다. 어떤 사람이 기지무나와 친구가 되어 함께 고기를 잡았다는 설화의 도입부는 이제까지 검토한 사례와 마찬가지로이지만, 이후의 전개과정이 전혀 다르다. 여기서는 기지무나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등장한다. 인간과 기지무나의 관계 맺기의 양상을 전하는 설화라기보다는, 기지무나와 친구가 된 ‘어떤 사람’이 부호의 딸과 결혼하여 전 재산을 차지하기까지의 과정, 바꾸어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사술을 동원하여 출세하기까지의 과정에 기지무나가 조연으로 동원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서사구조이다. 그 어느 쪽이 되었든, [사례9]에서 기지무나가 인간의 수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령스러운 존재로 인식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례9] 이외에도, 앞의 [사례5]에 등장하는 노인이 기지무나 덕분에 장수를 하였으면서도, 노인이 기지무나를 속여서 퇴치한 지 사흘 만에 죽고 말았다는 대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지무나는 자신을 배신한 인간을 죽일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수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였던 셈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검토한 기지무나 설화에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과 기지무나의 교섭에 관한 대목이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인간은 기지무나와 친해진 덕분에 무언가 이득을 보지만 그 관계를 지속하지 않고 절연하고자 시도한다. 그 결과 집안이 망하거나 가난해진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까지 한다. 왜 인간들은 기지무나와와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까. 일찍이 아카미네 마사노부(赤嶺政信)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sup>23)</sup> 아카미네 마사노부는 『유로설전(遺老說傳)』을 비롯한 여러 설화집에 전하는 기지무나 설화의 사례를 지역별로 나누어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sup>24)</sup> 다음

22) 佐喜眞興英(1922), 『南島說話』, 郷土研究社, pp.45-47.

23) 赤嶺政信(1994), 「キジムナーをめぐる若干の問題」, 『史料編集室紀要』, 沖縄県立図書館史料編集室, p.15.

24) 『유로설전』에 수록된 설화는 시기적으로 가장 빠르고 자주 인용되기 때문에 그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 마카베 군(眞壁郡)의 우에구스쿠 촌(宇江城邑)에 한 사람이 살았다. 이름은 구가키 사메도노(久嘉喜鮫殿)이며, 매일 밤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려갔다. 어

과 같이 기지무나의 양의적 성격이라는 관점에서 추론하였다.

이 설화에서 사메도노(鮫殿)가 함께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인물이 이야기 모티브로 볼 때에 기지무나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 설화와 다른 유사한 이야기와의 차이는, 사메도노가 기지무나와 교제하던 단계에서 그 기지무나가 요마(妖魔)라는 점을 꿰뚫어본 점이다. 환언하자면, 정(正)의 이미지(인간과 친하게 교제하며 그 결과 부를 초래하는 존재) 틈새로 기지무나의 또 다른 정체인 부(負)의 속성이 드러나고 말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원해서 기지무나와 절연하는 다른 설화에서도 기지무나의 부의 속성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으로, 늘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이 인간 쪽에서 절연하고자 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sup>25)</sup>

말하자면, 아카미네 마사노부는 기지무나가 인간에게 부를 초래하는 긍정적인 존재인가 하면, 한편으로 언제 인간에게 위해를 가할지 모르는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지무나의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먼저 절연을 피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기지무나의 양의적 성격에 대해서는 본고에서도 언급하였다. 아카미네 마사노부의 해석은 기지무나가 본질적으로 양의적 존재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설명으로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사례에서 확인 하였듯이, 인간 쪽에서 볼 때에 기지무나를 배신하고 절연

는 날 밤에 어떤 사람이 와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몰랐다. 시간이 흐르자 두 사람은 매우 친한 사이가 되어 매일 밤 함께 고기를 잡아 생활했다. 그 사람은 때때로 얼굴이 변하고 말도 이상했다. 사메도노는 '저 사람은 분명 인간이 아니라 요괴가 인간으로 둔갑했을 것이다. 저 요괴가 나를 해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에 고기잡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무렵이었다. 몰래 그 뒤를 따라가 보았더니, 곧장 산[마을 앞에 있다]으로 들어갔다. 모습을 감추고 한 뿔나무 속으로 들어갔는데 종적을 알 수 없었다. 그 뿔나무를 보았더니 매우 오래된 늙은 나무였다. 의심의 여지없이 요괴가 둔갑한 것이 분명했다. 사메도노는 마음속으로 크게 놀라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사실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고기잡이 나간 동안에 아내로 하여금 그 뿔나무를 불사르도록 시켰다. 그러자 요괴는 거주할 곳이 없어서 구니가미(國頭)로 가서 살았다. 하루는 사메도노가 일이 있어서 슈리(首里)로 나갔다가 시장에서 친구를 만나 함께 술집으로 들어갔다. 잠시 돌이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사메도노가 전에 뿔나무를 불사른 일을 친구에게 숨김없이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갑자기 화를 내며 차고 있던 칼로 사메도노의 손가락 사이를 찔렀다. 요괴가 친구로 둔갑한 사실을 어찌 사메도노가 알 수 있었겠는가? 마침내 도상(刀傷)으로 인해 죽고 말았다. 그래서 마을 앞 들판에 매장하였다. 사메도노는 죽기 전에 생긴 모습이 보통 사람과 달라서 피부가 상어와 같았다. 단지 손가락 사이만이 사람 피부와 똑같았다. 그 때문에 요괴가 사메도노의 손가락 사이를 찔렀다고 전해진다. 김용의 역(2010), 『유로설전』, 전남대학교출판부, pp.290-291.

25) 赤嶺政信(1994), 「キジムナーをめぐる若干の問題」, 『史料編集室紀要』, 沖縄県立図書館史料編集室, p.26.

한 후의 결과, 다시 말하자면 기지무나의 무서운 복수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지무나의 복수는 때때로 설화 속의 주인공의 죽음으로 직결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주인공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기지무나와 절연을 해야 할 이유는 없었을 터이다.

필자는 설화에서 인간이 기지무나와 절연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인간과 기지무나 사이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본고에서 직접 인용한 사례를 비롯하여, 그 어떤 사례에서도 인간과 기지무나 사이에 혼인이 성립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이류혼인의 모티브가 포함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점에 관해서 앞서 검토한 [사례6]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례6]에 등장하는 잣과 아이는 잣파를 아버지로 하고 인간을 어머니로 하여 태어난, 말하자면 이류혼인의 산물이다. 그 때문에 부계혈통을 중요시하는 인간사회에서 아이를 받아들여 인간세계에서 키우지 않고 하천에 내다버렸던 것이다. [사례6] 이외에도 잣파에 관한 설화 중에는 인간과 잣파의 혼인에 관한 설화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sup>26)</sup> 그렇지만 인간과 기지무나 사이에 혼인이 성립하는 설화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인간과 기지무나의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와 인간이 기지무나에게 절연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이에는 무언가 필연적인 문화적 배경이 존재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기지무나는 나무의 정령으로, 사키마 고에이가 『남도설화』에서 기지무나 설화를 <식물에 관한 이야기(植物に關する話)>에 포함시켜 분류한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지무나의 ‘식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sup>27)</sup>

## 4. 맺음말

본고는 애니메이션 <잣파 쿠와 여름방학>에 주역인 잣파와 함께 조역으로 등장하는 자시키와라시, 기지무나 등이 본래 유사한 신격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키나와의 요괴 기지무나가 자시키와라시나 잣파의 신격을 아우르

26) 예를 들면 柳田國男의 『遠野物語』 제55화와 제56화는 인간과 잣파 사이에 태어난 자식에 관한 설화이다. 이에 관한 텍스트는 다음을 참조. 김용의 역(2009), 『도노 모노가타리』, 전남대학교출판부, pp.96-98.

27) 혹은 1차적으로 기지무나의 가택신적 성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일본의 이류혼인담은 대부분 자연 속에서 동물이 인간세계로 내방하여 인간과 무언가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가택신의 경우는 애초에 집안에서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자연 속에서 인간세계를 내방하는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류혼인도 성립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櫻井徳太郎(1972), 『動物昔話の類型-人獸交渉史の視點-』 『文學』40, 岩波書店, p.97.

는 다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오키나와에 전하는 요괴 기지무나는 흔히 나무의 정령으로 간주된다. 기지무나가 나무의 정령으로 인식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지무나는 자연의 영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요괴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과 기지무나의 교섭에 관한 설화를 통해서 일찍이 오키나와 사람들이 기지무나로 표상되는 자연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는지, 혹은 어떤 관계를 구축하고자 시도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양상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기지무나라는 성격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는 동시에 기지무나로 표상되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기지무나의 성격을 크게 가택신적 성격과 비가택신적 성격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기지무나의 가택신적 성격은 이와테현을 중심으로 전해지는 자시키와라시와 유사한 성격의 성격으로 파악하였다. 비가택신적 성격의 성격으로는 어업신, 산신, 수명을 관장하는 신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어업신으로서의 기지무나의 성격은 갯파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시키와라시, 갯파, 기지무나로 이어지는 요괴의 성격에 대한 비교 과정에서, 기지무나 설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설화적 모순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기지무나 설화에서는 등장인물이 먼저 기지무나와 절연을 시도하였다. 본고에서는 그 이유를 대부분의 기지무나 설화에서 인간과 기지무나 사이에 혼인이 성립하는 이른바 이류혼인의 모티브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과 연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일본 본토 및 오키나와 이류혼인담의 본질 및 특성을 시야에 넣고 연구를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

## 【参考文献】

- 김용의 역(2009), 『도노 모노가타리』, 전남대학교출판부, pp.45-46, pp.100-101.
- 김용의 역(2010), 『유로설전』, 전남대학교출판부, pp.290-291.
- 赤嶺政信(1994), 「キジムナーをめぐる若干の問題」『史料編集室紀要』, 沖縄県立図書館史料編集室, p.1, p.15.
- 石川純一郎(1985), 『河童の世界』, 時事通信社, pp.93-249, pp.259-278.
- 稲田浩二·小沢俊夫 責任編集(1983), 『日本昔話通観』(第26巻), 同朋舎出版, pp.132-133.
- 稲福みき子(1995), 「佐喜真興英の『沖縄民俗社会像』—その検討と課題」『沖縄民俗研究』第15号, 沖縄民俗学会.
- 小野重朗(1988), 「河童の系譜」『河童』, 岩崎美術社, pp.92-117.
- 折口信夫(1967), 「座敷小僧の話」『折口信夫全集』15, 中央公論社, pp.256-264.
- 川田牧人(1987), 「妖怪の交響楽—奄美·加計呂麻島における妖怪譚の構造分析試論—」『日本民俗学』169号, 日本民俗学会. pp.37-71.
- 小松和彦(1979), 「妖怪—山姥をめぐる」『日本の民俗宗教』3, 弘文堂, p.32.
- 小松和彦(1983), 「魔と妖怪」『日本民俗文化大系』第四巻, 小学館, pp.341-358.
- 佐喜真興英(1922), 『南島説話』, 郷土研究社, p.40, pp.41-42, pp.45-47.
- 桜井徳太郎(1972), 「動物昔話の類型—人獣交渉史の視点—」『文学』40, 岩波書店, p.97.
- 佐々木喜善(1986), 『奥州のザシキワラシ』(『佐々木喜善全集』1), 遠野市立博物館.
- 島袋源七(1974), 「山原の土俗」『日本民俗誌大系』, 角川書店, p.346.
- 辻雄二(1989), 「キジムナーの伝承—その展開と比較—」『日本民俗学』179号, 日本民俗学会.
- 福田晃(1992), 「木の精由来譚の位相」『南島説話の研究』, 法政大学出版局, pp.348-375.
- 比江島重孝 編(1974), 『日本の民話』23, 未来社, pp.69-70, p.105.
- 柳田国男(1969), 「桃太郎の誕生」『定本柳田国男全集』第8巻, 筑摩書房, p.73.
- 山里純一(1995), 「佐喜真興英収集のまじない資料をめぐる」, 『日本東洋文化論集』(1), 琉球大学法文学部.
- 依田千百子(1991), 「妖怪トケビと朝鮮の民俗宇宙」『朝鮮神話伝承の研究』, 琉璃書店.

## 要旨

本稿は、沖縄のキジムナー伝承におけるキジムナーの多重的な神格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この研究は、原敬一監督の〈河童のクウと夏休み〉に、なぜ河童を取り上げたアニメーションに、東北地方の座敷わらし、沖縄のキジムナーがいつしよに登場するのか、その理由を日本の民俗宗教における妖怪の神格という視点から考えてみる過程において始まった。

沖縄の民間伝承に頻繁に出てくるキジムナーは、よく木の精であると言われる。つまりキジムナーは、自然の領域に属する妖怪である。したがって、われわれはキジムナー伝承に表れた人間とキジムナーのあいだの交渉の様相から、かつて沖縄の人々かどのように自然に接し、自然との共生をはかっていたのか、その一端を読み取ることもできるであろう。結論から述べさせると、それは妖怪キジムナーで表象された自然への限りなき畏怖の感性であったと言えよう。それゆえに、多くの人々は妖怪キジムナーを神として崇め、また恐れてきたのである。

ところで妖怪キジムナーの神格は多岐にわたっている。人間に富をもたらすありがたき存在であり、また害をおよぼす恐ろしき存在でもある。本稿では、主にキジムナーの神格を家の神、漁業の神、山の神、人間の寿命を司る神というふうに分けて考察した。それらの四つのタイプの神格の中でも、キジムナーの家の神としての性格は、東北地方に伝わる座敷わらしに似ている。キジムナーが家に住んでいるあいだは繁栄するが、その姿が見えなくなると零落してしまう。また漁業の神としての性格は、河童に近づい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キジムナーと親くなると、魚をたくさんとってくれるのである。

本稿では、キジムナー伝承における人間とキジムナーの交渉のなかで、なぜ人間は富をもたらしてくれる、ありがたき存在であるキジムナーと絶縁しようとするのか、という点についても言及した。その理由は、どうやら人間とキジムナーのあいだに、異類婚姻というモチーフが見られない点と深く関わっているようである。この点については、あらためて論を深めていきたい。

キーワード：沖縄説話、妖怪キジムナー、神格、自然の表象、異類婚姻、座敷わらし、河童

투 고 : 2014. 11. 30  
1차 심사 : 2014. 12. 13  
2차 심사 : 2015. 1. 3